

# 산사도 오수정화대책을

## 음식쓰레기등 증가... 동학사 암자까지 정화시설 '모범'

맑고 청정한 계곡이 음식점, 산장, 숙박 및 위락시설 등으로 오염되고 있다. 계곡물속에서 음식찌꺼기 등 각종 부산물을 볼 수 있을뿐 아니라 악취까지 풍기고 있다. 여기에 산사의 생활오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사찰도 환경과로부터 해방구가 아니라라는 지적이다. 사찰에서 각종 쓰레기 배출과 음식쓰레기 등 각종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는 생활오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생활오수를 줄이기 위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악산 신흥사(주지 도후)는 최근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중이다. 신흥사를 비롯한 인근 업소들은 국립공원 설악산 일대 계곡과 속초시 상수원인 쌍천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흥사는 문화재관리국이 지시한 보완조치가 끝나는 대로 시설물 설치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찰에서 손쉽게

생활오수를 자연정화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생활오수가 흘러나오는 곳에 연못과 습지를 만들어 연(蓮),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것이다. 연뿌리는 하수구에서 솟아져 나오는 생활오수를 정화시켜주는 자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사찰들은 건축물 면적과 오수방출량에 적합한 오수정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종단과 사찰차원에서 청정한 생활환경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이 전문한 실정이다. 청정

## 해인사 납골당 건립 '백지화'

### 총동문화 발표 성철스님 부도탑 타협될듯

해인사극락암(가칭) 납골당 건립이 백지화되고 성철스님 부도탑 규모조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광스님(해인사 주지)은 10월 29일 해인사 관음전에서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해인승

한 계곡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곡가 먼저 환경개선확보 등을 비롯 적극적인 환경정화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미 사찰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계곡산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발래할 때 세제를 적게 쓸 것 등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합한 오수정화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종단과 사찰차원에서 청정한 생활환경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이 전문한 실정이다. 청정

가대학 총동문화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납골당 건립을 담담 규조조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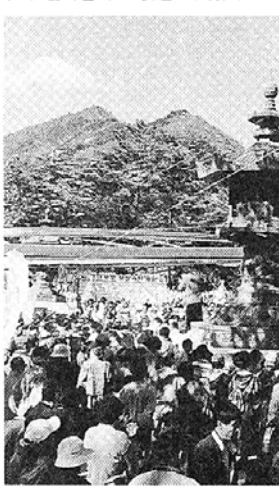
해인사극락암(가칭) 납골당 건립이 백지화되고 성철스님 부도탑 규모조정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계곡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곡가 먼저 환경개선확보 등을 비롯 적극적인 환경정화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 "전법의지 상심우려" 조계종 전법예산 축소

조계종총무원이 중앙총회 예산심의에 제출키 위해 편성한 내년 예산 가운데 전법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돼 종단의 전법의지 상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법의지 운영주체인 포교원은 최근 기획실에 전법예산 3억8천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기획실은 신청예산의 62% 수준인 2억3천7백만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2억원은 교구본사 교부금을 전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계종총무원은 올 2월 전법의지 해를 선포하면서 올해안 예산 5개년 계획을 수립, 내년 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총동문화는 이날 △납골당 건립을 백지화하고 그에 따른 손해는 주지이하 3인이 책임질 것 △경북 및 경남에서 추진중인 가야산 순환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반대 △성철스님 부도탑 문제는 9인위원회에 일임할 것 △임의에 문중대표와 승가대동문을 추가 전법 확대 개편할 것 등 4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 목탁소리

김원우 <취재1부 기자>  
법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못하고 한달 정도 법회를 한다고 짧게 말했고 어린이들은 고개만 가듯거릴 뿐이었다.

## 전국교사불자회 내년 1월중 창립

### 이달말 발기인 구성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임완숙)를 비롯 충북,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각 지역 불자교사 대표 10여명은 25일 광주에서 모임을 갖고 (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를 1월중 전국교사불자 동계연수회를 기해 창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대

표자들은 창립에 앞서 11월말경 대전에서 각 지역대표자 30여명 안팎으로 발기인을 구성해 창립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키로 했다.

포교원은 내년 청소년단체 지원예산 1억5천만원(미정) 가운데 일부를 전국교사불자회 창립에 지원할 방침이다.

## 새 국립중앙박물관 기공

### 용산가족공원에... 2003년 완공

통일의 시대 21세기 민족문화의 전당이 될 새 국립중앙박물관 기공식이 10월 31일 서울 용산가족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등 3부 요인과 각계 인사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부지가 9만3천평에 연건평 4만6천6백16평,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단순한 박물관의 기능을 넘어선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지어진다.

첨단 정보통신 설비를 도입, 유물들을 완전 자동 관리하게 되는 새 박물관은 역사실, 미술실, 기증실 등 29개 전시실에 8천여점의 문화유산을 전시하게 된다. 오는 2002년 건물공사를 완료하

고 1년간 유물전시 및 시운전을 거쳐 2003년 12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애국가 왜곡 시정"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최근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부분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보우하사...'로 바뀌어 저서 불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방송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PC통신 등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왜곡사태에 대해 제보를 접수한다. (02)712-5813

## 설악산 신흥사 통일대불 점안

민족 통일염원을 담은 설악산 통일대불이 11년간의 물사랑에 완공됐다.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는 10월25일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북한 동국학원 이사장, 설성 조계종 총회 의장스님을 비롯 황수영 前 동국대 총장, 서석재 국회정착회장, 최각규 강원도지사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대불 점안식을 갖고 남북통일 원만성취를 발원했다. <속초=김종근 기자>

## 뉴스 & 뉴스

### 청소년 관람료 인하요구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과 내부 문제부의 3개기관 합의이후 이번에는 청소년 어린이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마찰이 발생했다. 국립공원 계곡산 관리사무소가 공원내 동학사 감사 인신사측에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재 관람료를 1백원씩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 사찰들은 문제가 됐던 부분의 합의사항은 성인의 문화재관람료일 뿐으로 청소년 어린이는 종전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 전북·군산 파라미타 창립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성태스님) 전북지부 군산지회가 1일 군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창립 발대식을 가졌다. 기독교 전국 최강세 지역인 군산에서 파라미타 지회에는 군산교, 군산중앙교 등 8개교 약 4백여명의 회원이 등록했으며 화평스님(은적사 총무)이 지회장을 맡는다.

### 북한 문화재연구위 발족

북한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연구 조사하기 위한 정부차관기관인 '북한문화재연구위원회(위원장 한병삼)'가 10월28일 새로 구성됐다. 북한의 △건축 △고고학 및 미술사 △민속 △천연기념물 △보존정책 등 5개분과로 나뉜 이 위원회는 북한의 문화재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문화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 속초복지관 노인축제 '성황'

"어른 공경 이제 시작입니다. 배우고 봉사하는 존경받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10월 27일 속초문화회관에서 관내노인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빛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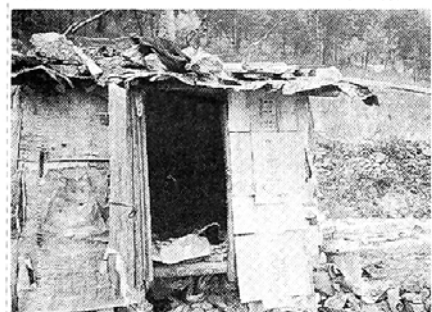
속초종합복지관 연꽃어린이집 원아들의 맨스루 시작된 이날행사는 은빛노인대학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폭주 각시 춤, 시낭송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제는 노인들이 도움만 받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 제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2부에서는 이용식씨의 사회로 송대관 김부자 이영화 김백국 민숙씨 등 출연 불자연예인들이 즐거운 한바탕 공연을 펼쳤다.

## 北 유아사망률 30% "구호 시급"

### 법륜스님 中자료 발표

95년이후 3년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유아사망률(1세~5세)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17일부터 21일까지 압록강 상류지역인 중국 장백현과 연변 등을 답사하고 돌아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추진위원장 법륜스님은 중국측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통계자료에 근거, 이같은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특히 북한 어린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탈북자들이 잠을 자기위해 숨어드는 중국인 농민주변에 신발, 헌옷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 대구여래한방

##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 신비의 옥(玉)이란!

옥에는 5가지의 덕(德)이 있다.

신비의 옥에는 (仁·義·智·勇·潔) 등의 5가지 덕이 있으니 이를 어찌 귀히 하지 않겠는가!

옥의 특징인 기의 자연 발생과 인체에 관한 실험결과(북경대 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불면증, 심장질환자, 귀울림병, 두통, 어지러움증, 고혈압, 관절염 등의 놀라운 치료효과의 발표가 있는 신비의 옥(108염주, 목걸이)를 염가로 사암 주지스님께 보시하고자 합니다.

\* 한정판매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리 393-1

## 대원사

(0331)262-0606

## 권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권

무위자인 육신통 대용맹정진에 입문하시어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정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미망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집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 眞人出 六神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通禪 (眞)人出 소림사에서 직승하는 도장정진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등급 심기선법·음미만매출·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및 동양철학 특강·개인지도.

신선들과 재석현왕이 응호하여 大道人의 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이 주문으로 하여금 모든 마장을 항복받을 수 있는 秘傳의 呪文입니다.

입제일 : 97년 11월 13일 음.10.14. (목요일)  
해제일 : 97년 11월 14일 음.10.15. (금요일)  
회비 : 5만원. (1박 2일 침시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80-188(구모지원고개 하차)  
전화 : (휴대폰) 017-236-3110  
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